

**YWCA (사) 한국YWCA연합회**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 릉 033.651.1385	대 구 053.652.0070	서 천 041.951.6400	원 주 033.742.6090	청 주 043.265.3700
거 제 055.682.4950	대 전 042.254.3035	성 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 천 033.254.4878
경 주 054.772.8141	동 해 033.531.3007	세 종 041.865.0872	익 산 063.857.8910	충 주 043.848.3240
고 양 031.919.4040	<b>마</b>	속 초 033.635.3523	인 천 032.424.0524	<b>타</b>
광 명 02.895.1966	마 산 055.246.8746	수 원 031.252.5111	<b>자</b>	통 영 055.646.2547
광 양 061.762.0012	목 포 061.242.1611	순 천 061.744.7990	전 주 063.224.5501	<b>파</b>
광 주 062.524.3511	<b>바</b>	<b>아</b>	제 주 064.711.8322	파 주 031.945.5998
김 해 055.332.6000	부 산 051.441.2221	안 동 054.854.5482	제 천 043.646.6009	평 택 031.651.7701
<b>나</b>	부 천 032.668.9700	안 산 031.483.6536	진 주 055.755.3463	포 향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 양 031.455.2700	진 해 055.542.0020	<b>하</b>
남 원 063.632.7002	사 천 055.833.2344	양 산 055.367.1144	창 원 055.283.9488	하 남 031.793.7771
논 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 수 061.654.2161		

www.ywca.or.kr

2013.04

**한국YWCA**

**이달의 생각**

우리는 주님의 기쁨일까?

**이달의 현장 ①**

제1차 전국 사무총장 협의회

**생명 씨앗**

2013 제1차 YWCA 생명포럼 스케치

**아카데미 정책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후쿠시마 탈핵 활동가 초청 강연회)

사진으로 여는 묵상



봄은 푸른 새싹이 움 돋는 새로운 시작의 시작입니다.  
봄은 꽃들이 저마다 예쁜 얼굴을 내미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푸른 싹이 돋아나고 예쁜 꽃이 피어나는 이 봄에 메마른 내 영혼도  
활짝 꽃피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햇살 아래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봅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나를 어루만지듯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미 새가 알을 품듯, 내 영혼 가득 주님의 말씀을 품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은 기쁨과 소망으로 피어납니다.  
말씀이 정말 생명의 씨앗임을 체험하는 순간이지요.  
기대와 설렘, 사랑과 헌신으로 어미 새가 알을 품듯,  
오늘도 행복한 설렘으로 주님의 한 말씀을 품어봅니다.  
아, 말씀을 잉태하는 이 기쁨이여.

최 병 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 차



Cover Story

생명이 움트는 불동산으로 목포YWCA 어린이집 원아들이 '푸르미 야외활동'을 나갔습니다. 따스한 햇빛, 살랑거리는 봄바람, 푸른 잔디내음이 아이들을 벅벅처럼 환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이 봄이 간질이는 느낌이 마냥 좋기만 합니다.

- 04 이달의 생각 \_ 우리는 주님의 기쁨일까? | 최형선
- 05 월례아침기도회 \_ '생명의 예수'가 있는 사람 | 최이우
- 06 이달의 현장 ① \_ 제1차 전국 사무총장 협의회
- 08 아카데미 정책교육 \_ 후쿠시마 탈핵 활동가 카타오카 테루미 씨 초청 강연회
- 10 생명 씨앗 \_ 2013 제1차 YWCA 생명포럼 스케치 | 김기동
- 12 생명 이야기 \_ 함께 사는 게 생명이다 | 이윤숙
- 14 평화의 여정 \_ 핵 전쟁위기 극복하려면 평화협정 다시 맺어야 | 노정선
- 16 돌봄협동조합 \_ "한 송이 들꽃은 혼자서 피지 않습니다" | 배정미
- 18 오늘의 여성 \_ 이제는 말해야 한다 - 아동 성폭력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반성 | 구미정
- 20 이달의 현장 ② \_ 2013 회원증모워크숍 | 윤수정
- 22 YWCA와 사회 \_ '생명에 생기를' | YWCA 국민일보 3월 기사 모음
- 24 키다리 \_ 2013 키다리 입학식 | 김은경
- 26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_ 생명과괴의 뿌리 찾는 근원적 운동 | 최만자
- 28 문화가 산책 \_ 오페라 아이다 | 이영진
- 29 고(故) 문태임 선생님 1주기
- 30 연합회 소식
- 31 회원YWCA 소식

제49권 제3호 통권 499호 2013년 4월 18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지원위원 김진영·백수경·신선·원영희·윤혜원·이경순·정선경·한영수 편집 박은실·이주영·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이미디어(02-730-0746) 구독신청안내 구독찬조금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동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주님의 기쁨일까?

글 | 최형선 (연합회 실행위원)



창조주 하나님은 생물의 진화를 허락하셨다. 허락하실 뿐 아니라 진정 원하신다고 믿는다. 한계를 극복하고 주어진 달란트를 배로 늘려가는 생물들의 노력과 결과물은 창조주께 드리는 기쁨이며 찬양이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는 살아남는다. 나는 하늘과 대화하기 때문이다. 식량을 등에 혹으로 몰아 싣고 사막의 땀별 가운데 선 낙타의 이야기며, 모두가 떠나버린 남극의 겨울 동안 더 혹독한 내륙으로 걸어 들어가는 황제펭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생명력은 한계를 뚫는 생존의지다. 생물은 유전적 잠재력을 발휘해서 극한을 무릅쓴다. 게다가 돌연변이까지 일어나면 뜻밖에 변신 호기를 잡을 수도 있다. 유전자 선택은 생물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임의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생물에게 제공되는 기적일지 모른다. 땅에 살던 고래가 바다로 들어갔고, 열대에서 마른 몸집으로 출현한 사슴이 커다란 사슴뿔을 암컷까지 달고 극지방에 멋진 순록으로 등장한 것도 아주 오랜 시간동안 대를 이어 어려움을 이겨내며 끊임없이 흘렸던 남모르는 땀과 눈물의 결과일 것이다. 대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YWCA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있는 걸까.

눈치밥 먹는 신세를 벗어나 First mover로 당당히 살아남은 생물 중에 사슴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사슴은 사시사철 양분이 넉넉한 열대의 부자가문 출신이지만 계절변화가 있는 기후에서 숲과 초원의 경계지역을 탐험하는 효율적인 초식동물로 진화했다. 어리고 빈약한 생태계를 선호해서 얼음이 녹는 가장자리를 찾아 극지방까지 진출하고, 고산지대에서 봄이면 녹은 눈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가며 먹이를 먹는다. 그렇게 얻은 특성으로 기후의 진폭이 커진 빙하기에 초대형동물이 멸종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다양한 모습으로 세를 넓혔다.

얇은 것에 머물며 섬유소가 많은 거친 먹이에 적응하여 안정과 현상을 유지하는 소나 양과는 달리, 사슴은 양질의 부드러운 먹이를 찾아 새롭게 발달하는 지역을 떠도는 전략으로 생존한다. 눈사태가 닳거나 산불이 닳거나 홍수로 범람한 지역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면 어김없이 사슴이 등장한다. 청년성이 몸에 밴 동물이랄까. 늘 젊은 여성으로 YWCA 안에서 길을 찾는 우리들 모습과 어설픔게 겹쳐진다.

사슴이 본색을 찾아 남다른 생존전략을 택한 초기는 지구 환경 변화가 컸었다. 건조지역이 넓어지고 있었고 계절이 달라지고 기온이 내려가는 추세여서, 숲은 줄어들고 초원이 확장되는 시기였다. 역동적이고 부지런한 사슴은 출생지를 떠나 큰 세상을 경험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늘 구할 수 있는 먹이에 도취되어 몸집 키울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야원 동물은 추위에 약해 따스한 기후에 살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서식지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늠름하게 추위에 적응한 순록은 멋진 사슴뿔을 달고 해마다 12월이면 산타클로스를 태운 썰매를 끌고 등장한다. 순록은 포유동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320nm에 달하는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동물로 밝혀졌다. 눈 덮인 북극에서 상황인식이 힘들어도 자외선으로 차이점을 알아차린다. 어둠에 갇힌 북극 겨울에 썰매를 끄는 주인공으로는 제격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만큼일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일까? ❄️

# ‘생명의 예수’가 있는 사람

요 20:19~23

글 | 최이우 (종교교회 담임목사)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준다.

## 아들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기적도 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과거의 예수다. 이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1) 모여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죽으셨다. 예수가 없는 이들은 모여 있었으나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 2) 두려웠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19)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로부터 받을지도 모를 피해가 두려웠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모여 있다.

### 3) 아예 문을 닫았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19)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아예 문을 걸어 닫고 말았다. 그 야말로 삶의 현장에 맞부딪힐 용기가 없어 도피한 도망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일순간에 바뀐다.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주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 1) 평강이 있을지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이다.”(19)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평강이자 평범한 삶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한 필요이기도 하다.

### 2)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21)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보내시는 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 3)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22)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말씀하셨다. 함께 하는 예수의 영이 느껴질 때 보내어진 제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 땅 끝까지 나아가는 중인이 된다.

YWCA 모든 회원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

## 중점운동 탈핵 실천에너지 논의해

3월 21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열렸다. 차경에 연합회 회장과 연합회 및 회원Y 사무총장 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이 인도를 개회 예배로 사무총장협의회를 시작하였다.

전국사무총장협의회에서는 지역대표 선출 및 현안협약과 더불어 올 한해 YWCA 중점 운동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한다. YWCA '생명운동의 해' 인 올해 '탈핵 실천 에너지 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역운동을 중심으로 한 탈핵에너지 운동의 실천을 함께 고민하며, 이유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원전하나줄이기와 에너지자립마을'의 강의를 들었다. 또한 에큐메니컬 운동체인 YWCA의 기독운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장운재(이화여대 기독교학부) 교수가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컬 운동'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끝으로 전화성(CNT Tech) 대표의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조치' 강의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원전 1기만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서울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유진 위원은 전력대란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능력 제고 필요성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로 원전 하나 줄이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은 발전소는 없으면서 전기를 쓰기만 했던 도시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수도권 전기에너지 수요는 전국 수요의 38퍼센트나 된다. 이제는 에너지 자립 개념을 도입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을 골고루 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위원은 동작구 성대골, 강동구 십자

성마을, 성북구 돈암동 마을 등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례를 발표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장운재 교수는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컬 운동-WCC 제10차 부산총회에 즈음하여' 발표에서 '에큐메니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충실하려고 하는 지극히 복음적인 운동이자,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과정 그 자체라고 말했다. 또한 에큐메니컬 운동을, 신앙의 눈으로 이 시대의 징조를 읽고 이 세계의 위기에 책임 있게 응답하려는 '공동의 신앙운동'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는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의와 양극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종교간 갈등과 충돌, 세대 간·문화 간 단절, 그리고 영적·정신적 혼돈 등, 일찍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 되어 세상 앞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들불을 들고 서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올해 10월 열리는 제10차 WCC 총회를 앞두고, 개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장 교수는 WCC 총회의 한국 유치에 한국개신교가 이제 질적 성숙과 내실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초대 앞에 한국기독교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며, 그 길이 바로 에큐메니컬로 뻗은 길이라고 말했다.

강의 이후, 정책 및 현안협약이 이루어졌다. 2013년 제1차 사무총장협의회는 북부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6월 있을 예정이다.(글: 편집실)

### YWCA 너우리에너지 운동 - ①

너우리에너지는, YWCA생명운동의 일환인 탈핵실천에너지운동의 또 다른 이름으로,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빛나올처럼 퍼져 나가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4월에 부는 한국YWCA 생명의 바람

후쿠시마 탈핵 활동가 카타오카 테루미 씨 초청 강연회

#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후쿠시마의 아이들이 숨 쉬는 공기,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 모든 것들이  
엄마들에게는 아픔이자 걱정입니다.

후쿠시마의 아픔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디 오셔서 방사능의 피해에 맞서 싸우는  
후쿠시마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후쿠시마의 그 날 이후, 핵발전소 없이도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출구도 없는 어둠 속에 헤매는 후쿠시마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빛이 보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이들, 아이들의 생명입니다.  
아이들의 빛나는 생명이 바로 후쿠시마의 빛입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 - 후쿠시마 탈핵 활동과 초청 강연회

한국YWCA '생명운동의 해'이자,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2주년을 맞는 2013년, 한국YWCA는 '탈핵 실천 에너지 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삼고,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5부 지역 아카데미 정책교육과 연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후쿠시마 탈핵 활동가 카타오카 테루미 씨 초청 강연회'를 연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대지진 및 원전 폭발 사태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과 대안에너지 체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의 생활은 정신적 후유증과 방사능의 일상적 공포로 더욱더 고통스럽고 복잡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과 방사능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일본 시민들의 탈원전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오히려 핵발전소의 비중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이후 탈핵(탈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길로 들어선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과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핵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 또한 커져가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후쿠시마 탈핵 활동가 카타오카 테루미 씨 초청 강연회'는, 핵발전소의 위험과 탈핵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카타오카 테루미 씨는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지점에서 반경 100킬로미터에 거주하며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정보센터'의 대표로서, 방사능 감시활동을 비롯한 탈핵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핵 발전소 사고 이후 마을 공동체의

붕괴,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 초청 강사 카타오카 테루미(片岡輝美)

1961년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서 출생, '방사능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모임-아이즈' 대표 및 '아이즈 방사능정보센터 대표로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지점에서 100킬로미터 반경 내의 아이즈와카마츠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사고 이후 방사능 피해 진상 규명과 모니터링 사업, 특별히 방사능으로부터의 어린이 건강 피해 조사 사업 및 피해자 지원 활동 등 탈핵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크리스천이며 부모님이 목회하던 와카마츠에이마치 교회에 남편이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평화헌법9조를 지키는 모임' 등을 통해 평화운동을 전개해왔다.

### 초청 강연회 일정

지역 센터	일 시	장 소
경기 및 북부	4월 23일 오전 10시	서울YWCA 대강당
중 부	4월 24일 오전 10시	대전YWCA 강당
서 부	4월 24일 오후 3시 30분	전주 바울센터
동 부	4월 26일 오전 11시	경주교육문화회관

### 주님이 함께하시는 한국YWCA 자매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찬미 드립니다.

이번에 한국YWCA의 초대를 받아 한국을 방문해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폭발 사고의 진실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매일 "힘내라 후쿠시마! 부흥을 위하여"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탈핵, 탈원전을 바라는 우리들은 그 말에 찬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후쿠시마현을 위한 부흥일 뿐이지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써 3명의 어린이가, 100만명 가운데 1~2명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갑상선암으로 고생하고 있고, 7명의 어린이가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단언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 신조 정권은 핵발전소를 재가동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6만 명 이상의 후쿠시마 주민이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없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선택하거나 노는 장소를 선택하는 데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3천 명의 핵발전소 작업원이 방사능선량이 많은 고선량의 핵발전소에서 뒤처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크고 작은 지진이 날 때마다 매년 원자로가 갈라져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다시 멈춰있는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누구보다 국민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벌써 과거의 일로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성찰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인간의 오만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아이들에게 큰 죄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3·11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엄청난과 심각한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희망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번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YWCA의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가깝게 맺어져, 저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벗이 될 수 있기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4일  
일본 아이즈(會津) 방사능 정보센터  
대표 카타오카 테루미 올림

# 우리 안의 '생명'을 깨우다

글 | 김기동 (연합회 실행위원,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랑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신30:19)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던가. 혹독한 겨울의 추위 속에 대지는 죽은 것 같더니 기가 막히다. 바람 속 찬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도 전에 땅이 먼저 기지개를 펴고 있다. 봄이다. 어느 때처럼 올해 사순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 계절을 선사해 주신다.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을 기대하는 고난주간 목요일, Y연합회 강당은 이미 생명의 감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립 100년을 10년 남짓 앞둔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성찰하고 설립목적에 합당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 평화, 하나님의 창조질서보전'이라는 YWCA 설립목적에 접점을 찾는 포럼을 2년 전부터 개최해왔다. 첫해인 2011년은 '정의'에 대하여, 그리고 작년에는 '평화'의 문제를 고민하고 올해는 '생명'이 그 화두가 되었다. 특히 포럼은 각 해의 주력운동과 맥을 같이 하면서 때 운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 운동의 근거와 필요성 그리고 열정을 제공하는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포럼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시작되었다. 근본적으로 포럼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지 않고는 생명에 대한 어떤 담론도 '생명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논의 가운데 '일생' 즉 '일상의 생명

감수성'이라는 포럼 주제가 탄생되었고 5번에 걸쳐 '일생'을 깨우고 다지고 놓고 살아내는 능동적 작업을 실험하기에 이르렀다. 참가자들에게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듣고 배우는 것을 탈피하여 각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생명의 의미 그리고 생명운동의 가치를 찾아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첫 시간, <일생, 깨우기>가 시작되었다. 사진으로 주어진 이미지 그리고 몇 가지 질문만을 가지고 참가자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다. 어떤 주제도 주지 않았고, 사진과 질문 앞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느낌을 나누도록 하였는데 결과는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생명력' 있게 이뤄졌다.

성서에 의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의 때로부터 21세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랑으로 주어졌다. 인간으로 하여금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보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감탄의 소리는 그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그리 보기에 좋다고 했을까? 수채화가 그려지는 도화지를 상상한다면, 아마도 그 감탄의 소리는 화가의 손길이 지나칠 때마다 점점 채

워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의 제목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늘과 땅의 공간은 피조물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함께 하는 장이 되었고, 그 공존하는 시간 속에 그 모든 피조물들은 점점 친밀함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에 허락하신 생명은 개별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서로 살리는 힘이다. 생명은 관계성 즉 나만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니 나 혼자서는 결코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음, 더 나아가 너를 살려야 나도 살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살아있음'을 넘어 상대에 대해 '살아있다'고 의미부여하는 것을 총괄한다.

첫 포럼시간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한 시간여에 걸친 조별 나눔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어떤 논의 방향도 주지 않고 그저 감성적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미 참가자들은 '생명'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쏟아내었다.

*'유기적 관계' '살리는 힘' '순환' '소통'  
'나눔' '채움' '상생' '관점의 변화' '공감'  
'공존' '질서' '배려' '소성시키는 힘'  
'좋은 영향력' '움직임' '성찰' '무욕' '간결함'*

'일생'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깨어났다. 생명은 사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근대사상의 이분법은 생물과 무생물을 분류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생물'로 치부하는 것들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생명은 있음 그 자체다. 있기는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모세의 유언은 네가 살아있는 만큼 살리는 존재

가 되라는 소리다. 그런 점에서 '일생'의 깨어남은 살리는 사명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YWCA에서 2013년은 생명운동의 해다. 운동의 역동성은 좋은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포럼은 모험인 동시에 간절한 바람이다. 우리 안에 먼저 서로 살리는 힘을 소성시키고 함께 체험함으로써 이 땅을 살리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YWCA로 다시 서는 계기가 되길 소원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이 계절에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을 살기를 소망한다. 

※제2차 생명포럼 - 생명 감수성 다지기  
2013년 5월 30일(목) / 연합회 강당

## LED 및 태양광시스템 설치운동이름 공모 당첨자 선정

- 최우수상 (민들레상) '너우리에너지' (신종우)
- 우수상 (솔씨상) '참참참발전소운동' (김충민)  
'빛토리' (권순만)

### 최우수상

'너우리에너지': 탈핵실천에너지운동의 취지와 더불어 많은 이들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이미지를 가장 잘 살렸으며, 빛이 확산되는 느낌이 드는 '너우리'라는 이름이 앞으로의 운동에 대한 긍정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준다.

### 우수상

'참참참발전소운동':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로운 '핵 없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운동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할 수 있는 생명운동이라는 이미지를 잘 살렸으며, 운동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의미 또한 잘 나타내고 있다.

### 우수상

'빛토리': '빛'과 '승리'라는 단어를 합성한 말로서 신재생에너지 운동에 대한 대중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 함께 사는 게 생명이다

글 | 이윤숙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 자살 1위, 대한민국

지난 3월 경북 지역의 어느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스마트폰에 부모님 앞으로 남긴 유서는 절박하고도 고통스런 절규였다.

“제 머리가 심장을 갇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그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는 학생이었는데, 성적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만 것이다.

제작년에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대구 중학생은 “이제 여한이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겨우 열네 살의 어린 학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음을 선택하면서 여한이 없다고 할까. 푸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하루를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하는 청소년들의 자살 소식들, 성적에 대한 부담과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지난 10년 간 무려 10배나 늘었다고 한다.

정치가들은 무역수지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인류의 확산 등으로 국력이 획기적으로 신장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된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더 이상 못살겠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대통령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 2012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8년째 OECD 국가 중 1위였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3.6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2.5명의 2.4배이고 자살률이 가장 낮은 그리스의 3.4명과 비교하면 무려 약 9배나 된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만끽하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기기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소통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고립감과 절망감에서 헤어날 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계최고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경쟁해야 한다. 그래서 그 경쟁체제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업무에서 비롯된 우울증, 정서불안, 스트레스 내지 신경 쇠약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데, 한국에서는 직장인의 무려 70퍼센트가 스트레스 이상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한다.

도대체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된 것일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개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노인을 보살피는 일을 선택하기 어려운 나라가 된 것일까.

##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된 경쟁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에 일찌감치 내몰린 청소년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을 쌓느라 밤낮으로 분주한 대학생들, 연봉 많은 회사에 오래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여 능력을 쌓느라 정신없는 셀러

리맨들. 주변은 온통 경쟁을 부추기고 또 거기에 성실하게 부응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 질주해 나가는 모습에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 일색이다. 모든 가치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경쟁 레이스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잉여인간’으로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모두들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더욱더 경쟁에 전력투구하게 되고,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하면서, 패배는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사실 오늘날의 극대화된 학교폭력과 멈출 줄 모르는 높은 자살률은 이런 초경쟁 사회가 가져다준 불안과 비정함에 연유한다.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내 삶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면서 공동체의 협력, 우정, 유대감은 약해진다. 경쟁에서 낙오할 불안과 공포에 내몰린 사람들은 극단적으로는 다른 이를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나의 존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들은 극도의 경쟁과 강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일까.


## 상호부조, 우정, 호모 심비우스

19세기말 러시아의 학자이자 아나키스트였던 크로포트킨은 ‘상호부조론’을 통해, 자연계는 생존경쟁과 적자생존보다는 생물들의 상호협동의 형태를 통해 시련을 이기면서 생명을 영위한다고 보았다. 최근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도 자연계의 생물들에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무조건 남을 제거하는 것만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자연계에는 무모한 전면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생물들보다 남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한 생물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 대표적인 예로 식물과 곤충의 관계를 들며 “지구 생태계에서 생물종량이 가장 으뜸인 것은 식물, 그 중에도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그리고 개체수 면에서 가장 성공한 생물집단은 곤충이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을 위해 곤충이 대신 꽃가루를 날라주고, 그 대가로 식물로부터 꿀을 얻는다. 지구 생태계에서 수와 무게로 가장 막강한 두 생물집단들이 서로 물고 뜯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아 성공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인류가 지구에 더 오래 살고 싶다면 ‘더불어 사는 인간’ 혹은 ‘공생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심비우스(Homo Simbiuous)’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이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지만, 이와 반대로 근대 이전 우리 사회에도 굳건히 작동했던 공생과 우정, 환대가 인간 삶의 원리로 자리잡고 있는 나라들 또한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지난해 TV로 방영된 다큐멘터리 <최후의 제국>에서 제작진이 찾은 솔로몬제도의 아누타 섬은, ‘아로파’라는 공생의 삶과 타인에 대한 환대가 살아있는 곳이다. 척박한 환경의 이 작은 섬에는 단 한명의 굶어죽는 아이도 없다. 이곳 사람들은 고기잡이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은 이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남편 없는 여성이 맘 놓고 출산하도록 먹을 것을 가져다준다. 한 달 동안 취재한 취재진이 떠날 때는 온 주민이 헤어짐을 슬퍼하는 통곡을 하면서 따뜻한 우정을 표현한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없지만 이곳에 자살이나 폭력은 없다.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다.

경쟁을 당연히 여기면서 지치고 생기 없이 살 것인가, 제 입을 새의 정원으로 내어준 악어처럼, 꽃가루를 퍼트려 준 벌들에게 꿀을 선물한 꽃들처럼 공생하며 살 것인가, 모세의 유언대로 생명을 선택한다면 이제 ‘함께 살기’로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이반 일리치의 이 말이 이 비정하고 엄혹한 경쟁 사회 속에서 더욱 절박하게 가슴을 친다. 

평화의 여정

# 핵 전쟁위기 극복하려면 평화협정 다시 맺어야

글 | 노정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열린평화포럼 공동대표)

올해 7월 27일은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협정문 서언이 밝히는 정전협정의 취지는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교전을 멈추는 데 있다. 아직 한반도는 휴전상태로 한국전쟁은 세계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으며, 최근 불안한 정세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적인 대화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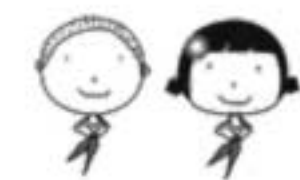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다른 대안은 거의 별로 없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수백만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휴전 협정을 맺을 당시, 미국은 북한에게 휴전협정에 즉시 서명하지 않을 경우에 핵무기 폭격을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팡덕희, 유엔군 대표인 미국장군 클라크의 서명으로 한반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2013년 4월 1일, 북한은 휴전협정이 백지화되었다고 선언하고 전쟁 상황을 선포했다. 불가침선언도 무효화되었고, 남북의 모든 관계는 전쟁 상황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남과 북의 군사통신이 단절되었고, 적십자 전화도 단절되었다. 자신들의 존엄을 훼손하면, 개성공단도 잠정 폐쇄했다. 더 이상 전쟁도 아니고, 종전도 아닌 상태는 없어지고, 전쟁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외국인들은 철수하라고 한다. 미국 워싱턴, 미국 내 콜로라도기지, 하와이 기지, 괌의 기지, 한국의 미군기지 등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의 목표물이라고 선언했다. 다국적무기상들은 무기쏘를 해서 200억불을 벌어들일려고 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음모에 말려들지 말자. 돈벌려는 탐욕의 노예들에게, 무기판매마켓팅의 기회를 주지 말자.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평화협정이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평화협정을 남한과 북한이 체결하고,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묶어서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미분해서 적분하는 방식으로, 혹은 획지방식으로, 협정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남한은 휴전 협정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주도해야 한다. 북한이 이미 선언한 휴전 협정 백지화를 역으로, 평화협정을 맺는 계기로 삼도록 해야 한다.

북쪽에서 수백 대의 전투기들이 연평도로 공격하는 것을 남한의 레이더가 읽고 총반격을 하는 전투가 발생했는데, 보초가 육안으로 보니 새떼들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오판으로 인해 남북이 미사일을 쏘아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들리겠지만, 농구선수 로드먼이 말한대로, 오바마가 김정은 지도자에게 즉시 전화하고, 평양에 가서 농구 매니아인 둘이 농구시합을 10분만 한다면 둘이 친구가 되고 친선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성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친다. 미국과 북한이,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더 이상 전쟁 없이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특정 국가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 정의에 근거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문제가 풀린다. ♡



## 북한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주일



월 3만원이면 북한어린이 한 명이 한 달간  
분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에 북한어린이들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어린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YWCA**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Tel. 02-774-9704 www.ywca.or.kr  
후원계좌 :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돌봄협동조합

# “한 송이 들꽃은 혼자서 피지 않습니다”

글 | 배정미 (연합회 돌봄과살림팀 부장)

“협동조합 방식으로 교육해보니 인성·성적 모두 개선 되더군요”

지난 3월 27일자 모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제목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성공회대에서 개최된 협동조합 국제심포지엄에서 영국의 왈리레인지 고등학교의 제인 반스 교감이 발표한 내용이다.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영국에 410여 개의 협동조합학교(cooperative school)가 생겨날 정도로 열풍이 불고 있고, 2008년 스톡포트에서 시작해 3년 만에 200개를 넘어 서터니 올해 말에는 500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본 회 돌봄과살림팀에서도 '우리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마을공동체를 이룬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 사례를 접하고 지난 4월 4일(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이송지 사무총장을 만났다.

### 공동육아란 무엇인가요?

공동육아는 말 그대로 부모들이 협동해서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함께 키우는 운동입니다. 즉, 공동육아는 ‘내 아이 바라보기’가 아니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

### 공동육아는 왜 생겨났나요?

처음에는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이 날로 늘어나는데 비해 보육이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보육기관의 수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공동육아’라는 발상이 나왔습니다. 그 첫 시도가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입니다.

###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왜 협동조합으로 구성하나요?

협동조합이란 사람들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하여 사업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합니다.

공동육아는 주로 이와 같은 협동조합 방식을 취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함께 운영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협동조합방식이 사람과 사람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내용과 형식에 걸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은 어떤 체계로 운영되나요?

어린이집의 운영과 조합 운영으로 나뉩니다. 첫째, 조합 운영은 구성된 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조합 재정의 안정화, 조합원 관리, 정부지원체계 확보 등에 주력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은 어린이집 일과와 터전 환경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원장(또는 교사대표)이 중심이 된 교사회가 담당합니다. 부모조합원이나 지역조합원은 교사들의 터전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통해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은 0세부터 초등과정까지의 아동을 둔 15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주민 자치적 육아방식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내의 아동은 11명(상시 인원 기준)에서 40명 내외로 중소 규모가 대부분이지만, 50-100명의 큰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규모 어린이집을 설립할 경우, 참여민주주의와 공동체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필요합니다.

###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모으고 사용되나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참여자들이 내는 출자금입니다. 각 조합의 조합원 규정에 따라서 부모만이 출자하는 경우, 부모·교사·지역사회구성원(장학회원)이 출자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각 가구의 출자금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생활터를 마련하는 데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더 이상 보육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돌려줍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에 맞는 적절한 수의 교사를 확보하고, 주식과 간식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교재교구를 마련하는 등의 일상 운영경비는 모두 부모들이 매월 내는 보육료로 충당합니다. 그외 조합운영을 위해서 조합비를 납부합니다.

###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나요?

공동육아의 철학·원칙 중의 하나는 부모가 보육과 교육의 단순한 고객인 아니라 운영을 직접하고 교육내용도 교사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참여는 교사의 권한과 갈등관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부모들이 한결같고 성숙하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와 같지 못한 상황에서는 교사들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부모들이 적절하게 교육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원들도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의 안건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릴 경우, 또는 아이들의 다름에서 비롯된 문제제기가 논쟁이나 협의로 진행되지 못하고 인신공격이나 상호불신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적 양금 없이 논의를 전개해나갈 수 있으려면 좀 더 의사소통에 대한 연습과 공적인 소통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조합 운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합의 성장에 따라 조합원 교육을 철저히 계획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 운영체계와는 별개로 조합원간의 친분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문화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세시절기에 따르는 생활문화, 먹을거리나 나들이로 나타나는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일을 가정에서도 함께 해나가면 조합원 간의 공통된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송지 사무총장은 어린이집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이룬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음 시를 소개했다.

“한 송이 들꽃은 혼자서 피지 않는다 / 여럿이 어울려야 비로소 핀다 / 들꽃은 아름답지만 / 혼자서 아름다움을 뽐내지 않는다 / 한 송이 들꽃은 그래서 / 바람이 불어도 외롭지 않다 / 들꽃이 피어서 / 들꽃이 피어서 / 산이 무너지지 않는다 / 강이 끊어지지 않는다. (시:이현주)”

# 이제는 말해야 한다

## 아동성폭력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반성

글 | 구미정 (숭실대학교, 기독교윤리학)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 성폭력 사건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빈도 면에서나 강도 면에서 상상을 초월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 중에서도 더 약자인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2년 7월 통영 소녀(10세) 성폭력·살인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주 소녀(7세) 성폭력 사건이 또 일어났다. 전 국민을 공분케 한 2008년 '나영이 사건'의 재현이다.

### 왜 하필이면 '여아'(女兒)인가

사실 우리 사회 아동 성폭력에 관한 관심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1991년 '김부남 사건'은 당시 31세이던 김부남이 9살 때 자신을 강간한 송백권(당시 55세)을 찾아가 21년 만에 보복 살인한 사건으로, 재판정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고 절규한 그녀의 고통으로 인해 아동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신체·심리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새삼 증폭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는(1994년) 물꼬가 트였다. 그 사이,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비친교죄'로 바뀌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그 수법조차 날로 잔인해지고 있다.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철저한'(radical) 대책을 수립하려면, 가부장제와 경제주의라는, 여아성폭력을 유발

시키는 사회적 토양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법률과 제도의 정비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의 풍토(ethos)가 덜 경쟁적이며 더 평등하게 바뀌어야 한다.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의 반제(antithesis)로서,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자'(마태복음 25:40)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보살핌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

### 아동성폭력에 침묵하는 기독교

우리는 교회에서 아동성폭력은 물론 어떤 성폭력에 대해서도 들어본 일이 거의 없다.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교회 '밖'에서(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침묵의 원인에 대해 여성목사이고 신학자인 메리 포춘(Marie M. Fortune) 박사는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기독교의 오랜 가부장적 역사가 성폭력을 주요 문제로 보지 못하도록 기여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희생자들이 대부분 교회의 권력 위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자 어른들과 여자 어린이들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성폭력은 명확히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성'(性)과 관련된 폭력이기 때문에, 성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풍토에 떠밀려 침묵이 강요되기 일쑤다. 일반 사회가 피해자에게 '몸을' 버린 여자' 내지 '헤픈 여자'라는 낙인찍기를 통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인다면, 교회 공동체는 거기에 더하여 '믿음 없는 여자'라는 낙인

까지 얹어주는 것이다. 피해자의 침묵은 공동체의 침묵으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침묵은 피해자의 침묵을 부추긴다.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성폭력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죄'(unmentionable sin)라고 은밀한 눈길을 주고받으며, 성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숨기는 데 공조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공격하고 위해(危害)하는 수단으로 성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단지 폭력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강간을 포함한 일체의 성폭력을 '성 경험'에 포함시키지 않는 시각이 중요하다. 또한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어떤 이유로든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져서 자신의 존재감에 상처를 입은 남성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너무나도 연약하고 취약한 여성 아동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점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 구약과 신약성서에 나타난 성폭력

구약의 성폭력에 관한 관점은 온통 가부장주의적이다. 사실 구약성서가 여성을 보는 시각은 철저히 남성에게 부속된 '재산'으로 보는 시각이다. 레위인 첩사건이나 추장 세겔의 디나 강간사건, 암논에게 강간당하고 버려진 다윗의 딸 다말 등 몇가지 성폭력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폭력으로 인격과 삶이 완전히 파괴된 디나와 다말의 고통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율법의 규정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여성에 대한 강간을 아버지와 남편(약혼남)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이해하고 있다.


구약성서와 달리 신약성서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명확한 준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복음 10:25-37)는 일단 우리가 성폭력을 성행위가 아니라 폭행과 공격 행위로 간주하도록 이끈다. 피해자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돌봄과 치유이지, 율법의 판단이 아니다. 상처 입어 신음하는 피해자가 교회의 도움을 받을만한 대상인지 따지기보다는 교회의 모든 자

원을 동원하여 도움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길이다.

교회는 이 약속의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자기를 꽃피워 나가야 할 어린이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의 짓밟힌 인격과 인권을 회복시키신다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악이 되는지도 알려야 한다.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하나님이지, 압제자의 편에 서서 불의한 악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교회가 고통 당한 여성들의 심터 되야

성폭력의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황과 지지와 연민이다. 교회는 고통 중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돌봄 목회를 구상할 때에는 옴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배워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느 성전인 사람의 몸이 어떤 세력 또는 위력에 의해 파괴되는 것에 분노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 이때의 분노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훼손된 데 대한 분노로, 하나님의 정의에 바탕을 둔 거룩한 감정이다. 따라서 교회는 분노를 무조건 금기시하는 대신에, 오히려 건강한 생명감수성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올바르게 분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잔혹한 성폭력의 상흔을 딛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생존자'(survivor)다. 이들에게도 역시 모든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신체적·심리적 돌봄을 누릴 권리가 당연히 주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고통당한 여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열어주는 심터가 되면 참으로 좋겠다. 교회가 '비존재'로 존재하기를 강요받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그들에게 생명과 해방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나 평등한 관계성과 상호성을 경축하는 생명의 산실로 그렇게 여성들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013년 회원증모운동 전략수립 워크숍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

글 | 윤수정 (회원Y 협력지원팀 부장)

##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

매년 연합회 중심으로 진행된 회원증모운동 전략수립 워크숍이 올해는 회원운동체로서의 정체성 강화와 회원증모운동 전개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를 목적으로 더 많은 자원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부지역위원회별로 진행되었다. 5부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위원회에 속한 회원Y들이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위원회별로 섬김과 나눔의 모습으로 유익하고 풍성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 워크숍은 강의를 통하여 회원증모운동의 의미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례 나눔을 통해 내가 회원증모운동에 접근하는 자세와 의미, 그것을 어떻게 전하면서 회원을 증모하였는지 생생한 실제 사례 나눔을 통해 회원증모운동에 대한 성공요인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워크숍 시간을 통해 회원Y에서 회원증모운동 전개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A부터 Z까지 배우면서 실제적으로 회원Y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지역위원회명	개최일	개최장소	참석자수
동부지역위원회	3월 15일 (금)	창원YWCA	84명
중부지역위원회	3월 15일 (금)	세종여성회관	50명
서부지역위원회	3월 19일 (화)	광주YWCA	60명
경기지역위원회	3월 26일 (화)	연합회 강당	58명
북부지역위원회	4월 4일 (목)	서울YWCA	50명

무엇보다 YWCA를 대표하는 여러 명강사들이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여 ‘회원증모운동의 의미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명강의를 해주셨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한국YWCA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 회원증모운동은 사람을 낚는 것이다

(동부지역 워크숍, 강사 - 이천진 목사)

예수님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오라고 한 것은 무조건 나를 버리고 따르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통하여) YWCA의 목적도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 이를 위하여 사람을 낚아야 한다. 사람을 낚는 것이 회원증모운동이다. YWCA 회원인 우리는 나의 비전이 아니라, Y의 비전(목적)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Y가 살고, 회원증모가 된다. YWCA는 청소년 운동, 여성운동, 기독교운동, 시민운동(회원운동)을 하는 기독교민단체이다. 이러한 Y본연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서 회원증모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하나님이 찾는 한사람,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그 한사람

(중부지역 워크숍, 강사 - 정숙 안양Y 증경회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Y다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Y다운 운동을 전개할 때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회원증모운동이 확



산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서 Y의 운동이 지역사회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내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Y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Y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이 찾는 한사람이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그 한사람이다. 그 한사람을 찾는 것,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지역사회에 펼치는 것이 회원증모운동이다.

### YWCA,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서부·경기지역 워크숍, 강사 - 강교자 연합회 직전회장)

YWCA는 회원조직이다. 즉 YWCA는 회원이 가장 중요한 기본 자원이며 자산이다. 그렇기에 회원증모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원들 가운데서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뚜렷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지닌 여성지도력을 발굴하여 성장,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회원증모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회원증모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기회이다. 회원증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원관리다. Y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회원을 찾고,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과학과 예술이 YWCA 회원증모운동이다. 회원증모는 YWCA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이다.


### 회원증모운동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참여할 동역자를 찾는 운동입니다

(북부지역 워크숍, 강사 - 하선규 부산Y 회장)

YWCA 회원증모운동은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동역자를 찾아서 YWCA 운동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회원증모운동은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는 일인 동시에 사회를 밝히는 일이다.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1%의 시민을 Y회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소극적 회원들을 적극적 선교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며,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 Y를 알림으로 이룰 수 있는 운동이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 가운데서 좋은 지도자를 발굴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지막으로 회원Y의 재정확보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다. 회원증모운동은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 만들기 운동’ 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주실 것이다. 이를 위한 지도자의 자세는 먼저 회원증모운동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하며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회원증모운동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은 신뢰감, 정직함, 성실함, 희생적인 숭신수범, 언행일치의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Y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강의들을 통해 사명감과 열정으로 마음을 뜨겁게 채우고, 사례나눔과 워크숍을 통해 지식을 채우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시민들을 만나러 갈 시동을 걸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YWCA가 속한 지역의 시민 중 1%가 YWCA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와 열심으로 회원증모운동에 참여하리라 믿으며, 작년보다 더 성장할 올해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위의 강의 내용은 워크숍 자료를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하나를 넘어 함께하는 우리로 '생명에 생기를!'

YWCA연합회는 매주 목요일 국민일보 32면에 YWCA 운동 정신과 현장을 소개한다.

3월은 '생명에 생기를!- 생생한 이야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YWCA 생명 이야기를 다루었다. 3월에 실렸던 기사를 발췌·요약하여 담는다.

(정리 : 편집실)

## 폭력없는 세상서 살고 싶다 3월 7일

성폭력 경우 우범자 관리시스템 허점  
보호관찰 명령 소홀 지역 하면서  
'피해자가 폭력 유발' 책임론도 제기  
어린이들의 경각심 일깨우는 것보다  
성인 대상 올바른 성의식 교육 필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하는 것도 중요

지난해 통영 김점덕 초등생 성폭력 살해 사건에서 언론과 경찰은 우범자 관리시스템의 허점이나 보호관찰 명령의 관리 소홀의 문제성보다는 어린 피해자의 행동에 초점을 둔 피해자 유발론적 시각을 드러냈다. 통영Y 성폭력상담소 김유은혜 소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통영Y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점적 대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동성폭력의 가해자인 성인 남성 대상의 예방교육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죠.” 성폭력 사건에 있어 성인 대상의 예방교육과 성 고정관념의 변화 등의 의식 교육이 중요하다. 정부의 아동 성폭력 근절책이 형량 강화나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처벌 강화 쪽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나 남성위주 사회 전체의 성인식의 전환이다. 아동성폭력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설명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보도와 처벌, 성폭력범죄 예방 대책이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로부터 발생하

는 폭력이며, 그 근본은 남성이라는 이름의 힘의 과시와 통제에 있다.

### Y가 만나는 세상

한국Y는 전국 26개 시도, 40여 곳에서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쉼터와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지원(법률적, 의료적, 상담적 지원)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가해자 재범방지교육(보호관찰소 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여성폭력추방을 주력운동으로 결의한 한국YWCA는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여성폭력근절을 천명한 박근혜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젠더 관점의 성평등과 인권 교육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범죄 발생 시 경찰 등 당국의 초기 대응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은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여성폭력의 순환고리가 끊어져야 한다. 끝으로, 성폭력가해자교육 집단 프로그램 진행상담자에게 성폭력재범 고위험군을 선별(screening)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핵없는 안전한 생명세상을 꿈꾸며 3월 14일

"Y부터 소비습관 등 바뀌  
에너지 자립 실현해보자"  
'탈핵신천대안운동' 중점 추진  
'탈핵 가능' 희망 보여주기

지난 3월9일 시청 앞 광장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2주기를 맞아 추모행사 및 탈핵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핵발전소 정책이 오로지 확대로 일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탈핵은 가능하다는 희망을 나누고 또 보여주기 위함이 있었다. “핵발전소 믿지 말고 하나님 주신 햇빛과 바람을 모으자.”, “핵과 신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핵발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악이라는 논리에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차질 없는 공급이라는 명분이 숨어있다. 그렇다면 '전기의 무한 소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핵발전소는 절대 필요하다는 논리를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받아들여야만 할까? 사실 그 답은 그리 절망적이지 않다. 52개의 핵발전소를 다 멈추고도 두 해를 넘긴 일본 국민들의 노력을 봐도 그렇고,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태양광에너지 시스템 등으로 대안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여 서서히 탈핵을 이루어가는 독일을 봐도 그렇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서서히 탈핵을 향한 용틀임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YWCA 또한 '탈핵실천대안에너지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삼고 탈핵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핵의 위험성을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중한 에너지를 펄펄 써대는 소비습관을 버리는 것, LED 등 친환경 조명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주신 햇빛을 모아 YWCA 관련시설에서부터 에너지 자립을 실험해 보는 것이 그것이다. 모든 생명을 절멸시킬 핵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려는 한걸음, 한국YWCA가 지금 그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 북한 어린이에게 생명을 3월 21일

어려운 이웃과 나눔은 기독교인의 의무  
고난의 행군 시작 90년대 중반부터  
'분유 보내기 운동' 등 대대적 전개  
식량권은 유엔규약에 명시된 기본권  
정치적·군사적 목적과 별개로 다뤄야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어린이와 함께”는 내 밥상 위에 예수를 초대하는 마음으로 북한 어린이를 초대하여 밥 한술

을 나누자는 의미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식비의 십일조를 기꺼이 내자는 YWCA 평화나눔 운동이다.

유엔의 기아 분류단계에 따르면, 북한은 총 5단계 중 4단계로 인구의 25~35%가 영양 결핍으로 심각한 기아 상태에 있다. 북한 어린이 3명 중 1명은 심각한 영양결핍이며,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률은 1천명 당 33명에 이른다.

한국YWCA가 평화통일운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해방 이전 북한에 존재했던 8개 지역의 YWCA 중 평양, 함흥, 안주, 선천, 신의주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와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북한 Y 재건 기금으로 적립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YWCA는 본격적으로 북한 식량 지원운동을 시작하였다. 1997년 '어머니의 마음을 북한 어린이에게' 전국 캠페인을 통해 대대적 모금을 벌이고 25톤의 분유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매해 분유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을 지원해 왔다. 특별히 2011년 한국YWCA는 이전 북한Y가 있던 지역 중 하나인 평안남도 안주시를 지속지원하기로 하고 신안주탁아소 어린이들에게 4톤의 분유를 보낸 바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평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때에 북한을 돕는 것이 적절한가를 묻는 목소리들도 들린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전쟁과 무력 분쟁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로서, 정치적·군사적 목적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식량권은 유엔권리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이다. 성서의 평화는 영적, 정신적, 물질적 상태의 안녕을 의미하는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줄 선한 의무의 이행을 통해, 내 것을 나누는 기독교 평화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곧 가정의 달 5월이다. 북한의 5월은 춘궁기(보릿고개)의 시작이기도 하다.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생각으로, 북한 어린이 한 명을 우리 가정에 품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지원하는 운동의 참여가 한국교회와 천만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키우자 Y다운 리더 키다리 2013년도 키다리학교 입학식

# 세상을 발로 뛰며 남아올 기억을 찾아 나서다 '키다리, 세. 발. 남. 기'



지난 3월 30일(토) 오전 11시, 연합회 강당이 2013년도 키다리학교 입학생들로 가득 찼다. 연합회는 2013년의 '세상을 발로 뛰며 남아올 기억'을 찾아 나서는 '키다리, 세. 발. 남. 기'란 주제로 키다리학교 입학식을 열었다. 이날 입학식은 회원Y별 키다리 모임, 환영식, 우리는 키다리(Part1,2) 점심식사+미션수행, 함께하는 키다리, 저녁식사로 이루어졌다. 회원Y별 키다리 모임 이후, 키다리학교 소개와 Y다운 리더십에 대해 함께 나누며 입학생들을 환영하였다. 소셜 '키다리아저씨'를 각색하여 짧은 연극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키다리'에서는 6개 회원Y 키다리가 올해 활동 주제 및 계획과 키다리로서 하고 싶은 일, 필요한 도움 등을 다양한 퍼포먼스로 발표하였다. '함께하는 키다리'에서는 키다리 배지 전달식을 가지며 회원Y로 파송하였다.

### <소감>키다리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고양 :** 두 번째 맞이하는 키다리학교 입학식에 참가하며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까 기대가 되었다. 입학식에서 작년에 알게 되었던 언니, 오빠들을 다시 만나니 반가웠다. 빙고 칸 안에 그 내용과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게임이 기억에 남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또한 조원들끼리의 단합을 위한 게임을 많이 했고 처음 보게 된 다른 사람들과도 게임을 통해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이날 앞으로 키다리학교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들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이번 해에는 꼭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모두 다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박민경(대전Y) :** 키다리 입학식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런데 모두들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어서 놀라웠다. '이것이 키다리 학생들의 힘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의 키다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키다리학교 입학식 이후 '키다리학교에서 어떠한 즐겁운 일들과 호기심이 생기는 일이 생길까?' 하고 또 다른 기대와 희망이 싹트게 되었다.

**서울 :** 1기에 이어 2기에 입학한 나는, 1기 친구들이 많이 변한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키다리가 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새로운 한해도 많이 기대된다♥ (이올기)

어느 장소에서나 자신감을 가지며 행동하는 키다리가 되는 2013년이 되길! 서울 키다리 파이팅! (김채연)

학교에서처럼 형식적이고, 딱딱한 입학식이 아닌, 게임을 하며 풀어진 분위기에서의 입학식에 쉽게 친해지며 많은 키다리를 만나 즐거웠다. (강보령)

키다리학교에 처음 들어왔는데 인권에 대해 배운다고 하니 다소 어려울 것 같았지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김상윤)

키다리학교 입학식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해서 재밌었다. (배서진)

여러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는 게임도 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앞으로 인권에 대해 더욱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오수민)

오랜만에 온 키다리♥ 정말 재미있었다. (김예인)

다른 지역 키다리들과 활동해서 어색한 감도 있었지만 같이 활동해서 새롭고 즐거웠다. (박세린)

활기차게 새로운 활동들을 해서 재밌었다. (정지혜)

전국에 있는 Y-틴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 활동들을 많이 해서 재미있었다. (이지운)

**박수정(광주Y) :** 혹시라도 키다리학교 입학식에 늦을까 봐 몇 분이나 시간을 확인하며, 터미널에서 친구들과 간사님을 만나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잠이 부족했지만 기대감으로 도착 시간만이 기다려졌다. 도착해서 키다리 학교의 단체복으로 갈아입고 명찰을 착용하니 야!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보는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조의 리더를 정하고 발표도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나가고, 빙고 카드 게임으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말을 주고받으며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레크레이션 시간에 참여한 꼬리잡기, 풍선에 싸인 받기, 절대 음감 등이 기억에 남는다. 올 한해 열심히 키다리 활동을 해서 졸업식에서 모두와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고 싶다.

**황희선(안양Y) :** 나에게 이번이 두 번째인 키다리학교 입학식은 또 다른 기대를 안겨주었다. 이날 6개 지역에서 모인 키다리들이 각 지역별로 그 주제에 대한 활동계획을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소통과 리더십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번 입학식을 시작으로 조금 더 올 한해 안양Y에서 해야 할 평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고,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많은 친구들에게 평화를 전해주고 싶다.

**최지혜(청주Y) :** 토요일 아침,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주 키다리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다른 키다리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을 가지고 연합회로 출발했다. '내가 생각하는 리

더'에 대해서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리더란,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충돌이 없게끔 앞에 나서서 그 그룹을 잘 통솔하고 이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다른 키다리 친구가 리더란, '뒤에서 받쳐주고 도와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새로운 관점에서 리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나 또한 키다리 학교를 통해 그런 리더에 가까워지자고 다짐했다. 오후시간에는 각 지역의 키다리들끼리 모여 일 년 동안의 계획을 세웠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의해 만들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담긴 활동계획안이라는 것이 신선했고, 앞으로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하는 의욕이 샘솟았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 체험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라 내게 그 의미는 더욱 더 컸다. 지역별 계획안 발표가 끝나고 다시 다른 키다리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이 왔다. 처음 만난 친구들이라는 것을 전혀 모를 만큼 모두가 함께 어울려 놀았다. 키다리 학교에 대한 기대를 적으며, 나는 지금 이 시간 나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모두 똑같은 목표를 위해, 혹은 변화를 위해 모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향해 가는 길에 같이 할 친구가 생겼다는 것에 감사했다. 정말 키다리라는 '기회'를 잡은 것에 대해 기뻐고, 1년 후에 졸업식에서는 모두가 변화하고 발전해 있기를 바랐다. 🌟



# 생명파괴의 뿌리 찾는 근원적 운동

글 | 최만자 (여성신학자, 연합회 아카데미 위원)

## 생명위기 인식과 생명운동

한국 YWCA 월간 3월호에서 필자는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 영역에서 생명의 문제를 중심과제로 삼게 된 연유와 금년 2013년 10월 부산 WCC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라는 주제를 택하여 지금 온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 생명의 위기 문제를 신앙과 신학의 중심에 놓기에 이르렀다는 서두를 언급한 바 있다. 이번호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생명운동'에 대한 대략적 과정과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문제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로마 클럽 보고서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로마 클럽 보고서의 환경오염에 대한 긴박한 보고는 많은 오염물질들이 온 지구상에 퍼져가고 있으며, 그 확산은 시급히 모르는 사이에 극한치에 도달할 수 있고 이대로 가면 100년 후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위기의 경고였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앞서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 의한 환경오염의 폭로가 있었고 그것은 환경의식을 대전환시킨 사건이었다. 그는 DDT로 인한 토양 오염으로 땅의 생명체들이 죽으며, 땅의 먹이를 먹은 새들이 죽고 땅에서 흘러내린 물로 물속의 고기들도 죽어 봄이 왔지만 새들도 울지 않고 물고기도 침묵하는 봄과 모든 생명체의 죽음을 초래하게 됨을 경고하였다. 화학제품 회사와 농약회사들의 강압에 맞선 논쟁에서 카슨이 승리하여 DDT 사용 금지를 이끌어 냈고 역사의 방향을 생명중심의 환경의식으로 전환시켜 환경운동의 출발점을 이루어 내었던 것이다. 이후로 생태학의 발전과 다양한 형태의 생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생명운동'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생명운동이란 현대문명이 가져다준 환경 및 생명의 파괴현상을 유기농법운동, 생태적 공동체운동 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되어있다(김애영, 생명선택을 위한 여성신학적 담론, 한국여성신학 2011, 73호). 또 우리나라에서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 운동가들의 글에서는 생명운동이란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저항하는 일로서, 반전평화운동, 기계적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유기농업 혁명, 생태생명 산업의 육성, 대안적 에너지 산업 육성을 추구하는 일이며, 유전자 조작과 생명복제에 맞서는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 지닌 문제들에 대한 비판운동을 의미한다고 한다(김애영, 위의 글). 최근에는 그동안 평화문제의 영역으로 보았던 핵의 문제까지도 생명의 문제로 범주화하여 반핵운동도 생명운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말해 생명운동은 매우 넓은 의미에서 지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수 많은 죽음의 상황들을 초래한 현실에 저항하고 그 극복을 통한 살림의 상황을 만들어 내는 모든 활동, 운동이라고 하겠다.

## 에큐메니칼 운동의 생명운동 논의 과정

이같은 인류 생존환경인 생태계 심각한 위협에 대해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끄는 세계교회협의회(WCC), 그리고 세계개혁신교회연맹(WARC)는 생명운동의 기반을 창조론에서 성령론과 관련시키면서 생명문제의 논의를 시도해 왔다. 1960년대 이르도록 WCC의 주요 관심사는 정의와 평화였다. 그러나 정의가 전제되지 않은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전제되지 않은 정의가 있을 수 없다는 깨달음과 1970년대에 생명위기 인식을 가지면서 정의에

기반한 '생명이 보장되는 사회'가 그리스도교 운동의 핵심과제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JPIC)으로 집약하여 표현되는 신학적 주제를 갖고 오늘날 세계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결정체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주제는 한국 YWCA의 목적문에서도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1975년 나이로비 총회에서 WCC는 '창조, 기술, 인류의 생존'이라는 소주제로 창조의 보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여 1983년 캐나다 밴쿠버의 총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주제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세계상황에서 그것에 저항해서 이 땅위의 그리스도교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이 문제에 대한 세계교회의 공통관심사를 집약하고 가능하면 함께 신앙적인 결의(convening)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발의를 했다. 그리고 1990년 3월 세계교회의 JPIC 대회는 그 발의를 수용한 독특한 성격의 '세계대회'(World Convocation)를 서울에서 가졌다. 이 대회는 세계 그리스도인의 공동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신앙적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생명운동의 상징을 '하나님과의 계약 갱신'으로 표현하였다. ((그 제목은 '홍수와 무지개 사이에서'였고, 창세기 9:1-17절의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계약을 회상하면서 오늘과 같은 지구촌 파국에 직면해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계약 갱신을 시도한 신앙적 행위를 행하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이 세계대회에서는 10개의 '신학적 선언'(affirmation)이 채택되었고 신앙적 다짐을 위한 '계약문서'(covenanting)의 협의과정을 가졌다. 인간의 죄악으로 홍수로 세상을 벌하신 후 무지개를 세워두고 노아와 새로운 약속을 하신 창세기 이야기를, 오늘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지구 생명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창조질서를 보존시켜 나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서와 연결시킨 것이다. 1992년 UN과 WCC가 함께 했던 브라질에서의 리우 세계환경회의도 이런 맥락을 가지며 '21과제'(Agenda21)를 합의 채택하였다.

## 생명운동의 의식전환

생명파괴의 원인이 서구의 현대적 세계관 곧 기계론적이며 과학문명의 발달원리에 의존해 자연을 대상화하여 지배하고 인간중심주의로 살아온 삶의 방식에 있음을 비판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이해를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준 것은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이 제시한 가이아(Gaia)가설(1970)가설이다. 그는 이 지구가 '생물과 무생물의 복합체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단정하며 이러한 지구의 실체를 '가이아'라고 명명한다. 러브록은 열대우림지역을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간주하며 열대우림의 손상은 핵전쟁보다 더 가이아에게 끔찍한 재앙이라 경고하고 지구 온난화 추세가 열대산림 파괴에 덧붙여지면 인류를 포함한 생물권 전체에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아래 원주민의 영성이 보다 생명운동의 대안적 영성이라는 인식과 생명체들이 모두 경쟁적인 개별체로서가 아니라 상호작용적인, 창조적인 통일체들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여 생명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보였다. 우주를 하나님의 몸으로 보는 여성생태신학의 발전도 의식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다.

## 2013 부산 WCC 총회의 생명운동 의식에 대한 전망

부산 총회에서의 핵심은 비인간화, 생태계의 멸망까지 초래하는 인류의 총체적 위기의 가장 근본 원인을 불의한 경제적 구조와 인간의 탐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생명문제에서 1945년 히로시마 원폭투하, 1980년대 체르노빌 원전사고,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보면서 반핵 생명정의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에큐메니칼 진영의 생명운동은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도덕적 각성과 생태적 회심운동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YWCA생명운동도 먹거리운동, 환경운동을 넘어서 생명 파괴의 뿌리를 찾아 모순된 불의한 구조에 관심하는 더 근원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대신전처럼 웅장하고 개선문처럼 호화찬란

글 | 이영진 (의사, 음악 칼럼니스트)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이 작품을 19세기 오페라의 전형적인 곡이라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 정세와 영합했던 작곡가가 대중 취향의 애국주의 노선에서 탈피해 인간 심리의 묘사에 주력한, 이른바 '심리주의 노선'을 견지한 오페라라고 말한다. 작곡 경위에 대해서도 설이 갈린다. 하지만 이 곡이 오페라의 제왕 주세페 포르투니노 프란체스코 베르디(1813-1901)가 남긴 최대 스케일의 걸작이리라는 데 대해서는 이구동성 긍정하고 있다. 오페라 <아이다>가 바로 그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어떻게 작품이 쓰여졌느냐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모두 정확하지 않다. 그래도 1869년 8월, 이집트의 총독 이스마일 파샤가 수에즈 운하 개통의 축하 사업의 일환으로 개장한 카이로의 오페라 극장 오프닝 행사용 축전 음악을 베르디에게 작곡 의뢰한 것이라는 발단이라는 게 통설이다. 베르디로부터 위촉을 거절당했으나, 파샤는 재차 라스칼라 극장의 감독 카미유 뒤 로클을 통해 이집트를 무대로 한,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용 오페라를 부탁했다. 베르디가 여전히 내키지 않자, 극장측은 그러면 라이벌인 샤를르 구노나 리하르트 바그너에게 작곡을 맡기겠다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전작 <돈 카를로>의 세 배나 되는 개런티, 이탈리아 초연권 등 파격적인 조건도 작곡에 착수하는데 한몫 했다. 1871년 완성되어 같은 해 12월 24일 카이로에서 초연이 열렸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집트 학자인 오귀스트 페르디난트 프랑소와 마리에트가 구상한 이야기를 기본 틀로 삼고 있는 <아이다>는 한마디로 베르디가 이전까지 쓴 스물세 편 오페라의 집대

성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오케스트레이션은 강력하고 명쾌한 선율로 치장했으며, 각 악기의 음색을 최대한 살려내려 심혈을 기울였다. 극적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늘고 긴 벨브가 달려있는, 일명 '아이다 트럼펫'이라는 독자적인 형태의 트럼펫을 무대 위에서 연주되도록 하였다. 저 유명한 '개선 행진곡'에서 찬란하게 울려 퍼지는 악기가 다름 아닌 '아이다 트럼펫'이다. 더불어 노래를 연극의 한 요소로 다루어 통상적인 아리아나 레치타티보 등 기존의 형식과는 들어맞지 않은 부분이 빈번히 눈에 띄는 것도 특징이다. 독창과 합창이 극 전체에 걸쳐 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작곡가는 오랜 세월 목표로 삼은 극과 음악의 융합을 <아이다>에서 시도한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아이다>는 이채롭다. 기본 배경은 기원전 1190년경, 고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 에티오피아의 왕녀로 적국의 노예로 잡혀 있는 히로인 아이다와 이집트 군대의 청년 지휘관인 라다메스의 러브스토리가 주요 열개. 그렇지만 대부분 작품들과 달리 두 남녀의 파국을 비극적인 죽음이 아닌, 관능적인 생과의 이별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통속적인 엔딩에 식상했던 관객들은 베르디의 아이디어에 매료됐다. 그 모든 이론을 떠나, <아이다>는 호화로운 규모의 음악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쉽게 넘쳐나는 오페라다. 라다메스가 부르는 <청아한 아이다>, 아이다가 부르는 <오, 내 고향이여>, <이기고 돌아오라> 등은 오페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귀에 익숙한 명곡중의 명곡이다. 4월 25일에서 28일 사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릴 서울시오페라단의 <아이다> 공연이 기대된다. 🎵

# 봄날, 문태임 회장님을 그리며..

김재화



故 문태임(호: 송제)  
증경회장

약력	
1910. 10. 19	개성 출생
1930. 3	호수돈 여자고등학교 졸업
1932. 3	경성사범학교 졸업
1943~1980	학교법인 호수돈 학원 이사
1958~1985	한국YWCA연합회 위원, 실행위원
1964~1980	학교법인 호수돈 학원 이사장
1968~	정동제일교회 장로
1973~2004	서울YWCA 재정위원회 위원
1974~1992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
1982~1985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985~1988	한국YWCA연합회 회장
1990~1992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장
1985~1988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이사
1991~2012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1982.	YWCA 공로상 수상
1986. 5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2003. 6	YWCA 대상 수상
2012. 4. 15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만물이 소생하듯 봄기운을 품은 이 계절에 선생님께서는 그 사랑 가득한 표정으로 하늘 위 높은 곳에서 여기 YWCA의 모습을 오늘도 지켜보시며 미소 짓고 계시겠지요

이 땅의 역사를 한 세기 동안 사시면서도 한반도의 격동했던 풍량의 역사는 선생님의 삶 속에선 정제되고 가라앉혀진 듯 늘 단정하게 가다듬으신 언행으로 본을 보이셨으니

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나 볼펜이나 시계 등을 골고루 나눠주시면서 기뻐하셨던 선생님의 날들 풍족한 삶 속에서도 검소하게 사시면서 베푸신 것이었으니 직원들은 용돈을 받고 각별한 잔치상을 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표상 사랑의 실천이 이제 화사한 봄날 우리의 추억으로 피어납니다.

선생님의 지도력은 일찍이 여고시절부터 뛰어나셨으니 학업이나 운동이나 진취적인 신여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모범생의 자세를 견지하시고 다복한 가정의 행복도 누리셨으니 그 받으신 축복과 은총을 YWCA에서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고 가셨습니다.

선생님은 회의 때나 기도하실 때나 또한 평상시에서도 장황함 없이 절제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셨기에 우리들은 산만해질 염려 없이 투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고운 한복차림의 모습까지 떠올리면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움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하늘 위로 올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행복하소서.

# 연합회 소식

## 4월 월례이침기도회



연합회는 4월 1일 오전 7시 30분에 월례이침기도회를 열었다. '생명의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최이우 목사(종교교회)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YWCA 생명운동과 탈핵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1차 전국사무총장 협의회



3월 21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1차 전국사무총장 협의회가 있었다. '탈핵 에너지 운동의 실천',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조치'를 주제로 한 강의와 지역대표 선출 및 현안협약이 있었다. 이날 연합회 및 회원Y 사무총장 46명이 참석하였다. (자세한 내용 p.)

## 후원자관리 워크숍

YWCA복지사업단 주관으로 3월 14일 연합회 강당에서 후원자관리 워크숍이 있었다. CMS 현황 및 후원자관리와 유지, 사례 나눔 시간을 가졌다. 후원자 관리 및 CMS 담당자 22명이 참석하였다.

## 은학의집 전문직 실무자 워크숍



YWCA복지사업단 주관으로 3월 16일 연합회 강당에서 은학의 집 전문직 실무자 워크숍이 있었다. '은학의집과 나', '활동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날 은학의 집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 Y-틴 중앙임원회

3월 23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Y-틴 중앙임원회가 있었다. 전국협의회 중앙임원 및 실무자 총 10명이 참석한 이날 Y-틴 중앙임원 역할 찾기, Y-틴 중점운동 전개 방안 모색 등 올해 활동 계획을 함께 나누었다.

## 친친공감프로그램 강사교육

연합회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포스코연수원(인천 송도)에서 친친공감프로그램 강사교육을 진행하였다. 친친와이파이존의 공감프로그램 소개 및 워크숍, 우수강사시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사 56명, 연합회·포스코 실무자 등 총 60명이 참가하였다.

## 제1차 YWCA생명포럼

연합회는 3월 28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1차 YWCA생명포럼을 열었다. '일상의 생명감수성 깨우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주제에 따른 모둠 활동을 진행한 후 소감을 나누었다. 김기동(생명비전연구소 위원)위원의 진행과 구미정(생명비전연구소 위원, 숭실대 기독교학과)교수의 총괄논평이 있었다. 이날 포럼에는 생명포럼대표단 60명, 실무자 10명 총 70명이 참가하였다. (자세한 내용 p.)

## 키다리학교 입학식

3월 30일 연합회 강당에서 키다리학교 입학식이 열렸다. 2기 키다리학교 입학생들 환영식이후 회원Y별 키다리 모임·소개와 나눔이 있었다. 이어 올해 키다리학교 활동계획 논의, 입학



생들의 키다리 비전과 기대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키다리학교 참가자 61명, 회원Y 실무자 8명, 연합회 실무자 9명 등 총 78명이 참석하였다. (자세한 내용 p.)

## 고(故) 문태임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

4월 15일 연합회 강당에서 고(故) 문태임 증경회장 1주기 추모예배가 있었다. 차경애 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기도, 이재은 목사(정동제일교회 원로목사)의 '미완성 망대에서 위대한 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었다. '겸손과 사랑, 지성의 YWCA지도자 문태임' 추모영상을 보며 고인의 삶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모예배에는 약 80명이 참석하였다.

## 친친와이파이존 협약식



지난 9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인 '우리 학교는 친친와이파이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포스코 관계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2012년의 성과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동 정

- 차경애 회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회장 선임 (2013. 3.)
- 고은희 연합회 청년리더십팀 간사 사직 (2013. 4. 15.)
- 손애령 남양주YWCA 사무총장 취임 (2013. 4. 1.)
- 한윤덕 여수YWCA 사무총장 취임 (2013. 4. 2.)
- 정재연 김해YWCA 사무총장 취임 (2013. 3. 13.)

## I YWCA News I

# 북부

## 서울 YWCA

## 박서영 간사

### 이사·위원 연구모임

서울Y는 2013년 이사·위원 연구모임을 3월 28일 진행했다. 150여 명의 이사, 위원, 직원이 모여 김기석 목사(청파교회)의 생명운동 강의와 비케이안 소장(한국기부문화연구소)의 자원활동 강의를 들었다. 또한, 분과토의를 통해 Y 자원활동가로서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 친친 와이파이존 협약식

서울Y는 3월 22일 대신중, 3월 25일 공릉중과 각각 협약을 맺고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존' 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공감과 소통이 있는 즐거운 학교문화 만들기에 나설 예정이다.

### 우리마을 희망네트워크 발족식



서울Y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마을 희망네트워크' 발족식을 3월 7일에 진행했다. 우리마을 희망네트워크는 22개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마을 이웃 간의 관계를 돌러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인천 YWCA

## 이하나 간사

### Y-틴 임원모임

인천Y 19개교 Y-틴 임원모임이 4월 6일 있었다. 예배로 시작하여 Y-틴 임원이 가져야할 소양을 워크숍으로 진행하고 발표하였다. 이어 임원 선출을 통해 Y-틴 회장에 이수빈(부광여고2), 총무에 문지원(석정여고2)을 선출했다. 올해 Y-틴은 대

## 회원 YWCA 소식

학Y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ZOOM IN 대한민국, 친친와이파이존, 자원순환 청소년지킴이,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문화대축제 등 청년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강릉 YWCA

## 김미란 간사

### 부활절 달걀 나눔



강릉Y는 2013년 부활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알리기 위해 부활란 나누기를 하였다. 강릉시청을 비롯한 관공서, 강릉Y 협력업체 77곳을 방문하여 예수님 부활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 여성희망찾기교육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고령자여성을 위한 여성희망찾기교육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있었다. 프로그램은 직장인의 예절, 직장생활과 안전관리, 환경살림, 인생로드맵 내인생의 새로운 설계와 실천다짐, 현대인의 키워드 소통으로 이루어졌고, 교육수료 후에는 간병사 또는 살림돌보미로 활동 가능하다.

## 속초 YWCA

## 백수미 간사

### 이사교육



속초Y는 3월14일 속초Y 이사교육을 하였다. 이날 연합회 전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숙 서울Y 이사가 'YWCA 목적문을 통한 자원지도자의 역할' 과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 하였다.

**춘천 YWCA** **이지원 간사**  
**장년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춘천Y는 만50세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년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단체급식조리원이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총 20여명이 참가하여 단체급식에 필요한 이론 및 조리실습, 서비스마인드, 건강관리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 관련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한편 2013년에는 단체급식조리원, 경비 및 주유원, 보육교사보조원, 보육시설조리원 과정이 진행된다.

**반찬 전문도우미 양성과정**



춘천Y는 4월 1일 직업개발부 사업으로 반찬 전문도우미 양성 과정을 개강하였다. 춘천시 및 인근지역의 30~50대의 주부를 대상으로 20명의 인원이 17일 간 안심먹거리 교육과 다양한 반찬 만들기, 조리종사자의 위생 및 친절서비스, 도우미서비스 등의 교육을 받는다. 반찬 전문도우미 수료 후 도우미 업무에 적격한 인력을 선별하여 지역사회 가정에 반찬 도우미를 알선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

**고양 YWCA** **전선영 팀장**  
**키다리학교 모집 완료**  
 고양Y는 2월 18일~22일 '키우자 Y다운 리더' 키다리학교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하였다. 총 39명의 신청자 중 인터뷰를 거쳐 총 31명의 청소년을 선발하였으며 3월 9일 고양Y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전국 6개 지역 키다리학교입학식으로 2013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고양Y는 올해에도 '평화'를 주제로 상반기에는 청소년축제를, 하반기에는 평화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가고자 한다.



장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남양주 YWCA** **이종은 간사**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  
 남양주Y는 3월 7일 남양주 시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을 마련하였다. '돌봄과 살림' 교육생들을 위한 소통 한마당으로, 지역사회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의 어려움과 지역에 바라는 점들을 나누었다. 이날 '돌봄과 살림' 교육생 54명과 지역주민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천 YWCA** **이지원 간사**  
**'2013 부천시의회 제185회 임시회' 방청 모니터링**  
 부천Y는 부천 여성정책포럼 주관으로 진행된 '부천시의회 방청,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였다. 3월 6일 제1차 본회의(시정 질문), 7일 각 상임위원회, 14일 제2차 본회의(시정 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5일 제3차 본회의(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방청하면서 시의원들이 부천시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모니터링지를 작성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지 취합 결과, 일부 시의원들의 지각, 정책대안제시 능력부족, 성인지적 관점 부족 등의 문제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부천시의회 의회일정에 따라 진행될 임시회 및 정례회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청,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3월 민들레 강좌 '갱년기 돌봄노동자의 내 몸 돌보기'**  
 부천Y는 3월 22일 민들레강좌를 진행하였다. '갱년기 돌봄노동자의 내 몸 돌보기'라는 주제로 정진주(사회건강연구소)소

**성남 YWCA** **황정아 간사**  
**살림돌봄비 신규교육**  
 성남Y는 3월 6일부터 7일까지 살림돌봄비 신규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23명의 여성들이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여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살림돌봄 서비스에 관한 이론과 실제(청소, 정리정돈, 세탁, 의류관리 등), 서비스응대기술, 사례발표 등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다.

**수원 YWCA** **정지영 간사**  
**친친 와이파이즌 협약식**  
 수원Y는 4월 4일 학교폭력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자 '친친와이파이즌 협약식'을 삼일중학교와 체결했다. 삼일중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홍승화 수원Y회장과 백일현 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친친와이파이즌에서는 학부모 '희망과 상상콘서트', '공간바꾸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려와 소통이 있는 학교 문화 형성에 힘쓸 예정이다.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친친 와이파이즌 협약식**  
 안산Y는 3월 22일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즌' 협약식을 본오 중학교에서 가졌다. 이날 협약서 교환 이후, 전체 교사가 모인 가운데 사업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1학년 14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친친공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공간 바꾸기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안양 YWCA** **최정근 팀장**  
**안양YWCA 창립 27주년 기념예배 및 정기이사회**  
 안양Y는 3월12일 창립27주년 기념예배를 가졌다. 배미숙 초대 회장의 '참리더'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다. 21세기의 카오스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판단력, 목표, 의지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참 리더가 되자 라는 말씀으로 Y다운 운동의 의미를 더하여 주었다.

**글쓰기 학부모 특강**  
 안양Y는 3월20일 '삶을 바꾸는 글쓰기 사로잡는 글쓰기'란 주제로 김미영 강사의 특강이 있었다. 100여명이 넘는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Y에 대한 인식과 아동·청소년기의 바른 가치관 형성발달과 특성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글쓰기 특강은 하반기에도 진행 될 예정이다.

**의정부 YWCA** **이미진 간사**  
**노란풍선 인형극단 단원 교육**



의정부Y는 지역아동의 평화의식 개선을 위하여 여성 인형극단 단원 교육을 4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한다. 인형극 이론, 각색, 인형 제작, 인형 연기 등의 교육을 거쳐 '난 재가 싫어'라는 창작동화를 각색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10회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자원봉사단의 인형극 공연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방으로 차세대 사회통합과 평화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 YWCA** **이정심 간사**  
**제1회 파주YWCA 사랑나눔 바자회**



파주Y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촌역 광장에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수술비 지원을 위해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성인 및 학생자원봉사자들 100여명과 파주시민 약 3천여명이 참여하였고, CTS경기서북방송과 (주)C&M경기케이블TV에서 현장취재를 했으며, 파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부활절을 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살림의미를 되살리고, 파주시민들이 선한 일에 마음을 모으는 파주전통이 되기를 소망한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우들의 수술비로 사용된다.

## 중부

대전 YWCA 강은혜 부장

### '돌봄과살림' 임원연수



대전Y는 3월 14일 돌봄과살림 임원연수를 가졌다.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사 회원 클럽 중 임원 48명이 참가하였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훈련, 고은아 대전환 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탈핵과 대안에너지 강의, 차영희 회

장의 YWCA와 돌봄운동 강의가 있었다. 또한 각 클럽별 분임 토의를 통해 YWCA 돌봄과살림에 소속되어 일하는 목적 및 정체성, 또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청주 YWCA 박보람 간사

### 세계기도일 예배



청주Y는 3월 8일 청주복대교회에서 '문을 열어 이방인을 영접하라'라는 주제로 세계기도일 예배를 진행하였다. 복대교회 이신자 회장의 사회로 청주·청원지역 260여명 10개 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류성문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세계기도일 예배를 통해 초교파적 기독교인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충주 YWCA 김애영 부장

### 소통 아카데미

충주Y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주관 3월 27일 소통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본 프로그램은, 공감·소통·경청·관계능력을 증진시켜 자신 및 타인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프로그램은 6회기로 진행된다.

### 기업간담회

충주Y 새일센터에는 3월 26일 경력단절 여성취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유관기관 및 기업 담당자 18명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하였다. 지역 여성들의 취업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논산 YWCA 김화선 간사

### 실무자 연수



논산Y는 3월 27일 실무자 연수를 진행하였다. 2013년 본부 및 부속기관 중점운동과 방향제시, 사업공유 등 올 한해 활동 내용을 나누고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YWCA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과 YWCA 운동 방향을 바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세종 YWCA 홍진영 팀장

### 세종Y 다래교실 검정고시반, 영어회화반 개설

세종Y 청소년부에서는 다래교실 검정고시반과 영어회화반 두 반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고 있다. 검정고시반에는 개인이나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 5명, 영어회화반에는 5명이 수업에 참여중이다.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며, 독서수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천안 YWCA 김상미 팀장

### 복지여고 자원봉사팀 연계 활동



천안Y는 복지여고 자원봉사팀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복지여고 자원봉사팀 32명은 4회기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EM교육(4월), 요양병원봉사(6월), 우리동네 청소하기(8월), 북한어린이분유보내기 모금운동 참여(10월)로 진행된다.

## 서부

광주 YWCA 김해정 간사

### 이사·위원 연수회

광주Y는 4월 13일 보성 다비치 콘도에서 제1차 이사·위원연수회를 가졌다.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개회예배, 최양님 회장의 인사말씀, 영성훈련(박대영 목사), Y주력운동이해, 감수성 리더십(명봉호 교수)후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와 찬양을 통한 영성 회복, 지도자간 영성 나눔, 사명감 회복, 이사위원의 지도력 강화, 중점운동 및 주력사업 이해의 시간이 되었다.

### Y-틴 회원환영 및 인준식

광주Y는 4월 6일 광주Y 강당에서 Y-틴 회원환영회 및 인준식을 가졌다. 2013년 Y-틴 클럽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예배 이후 인준식에서 서경숙 Y-틴 위원장과 최양님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회원 및 클럽인준·공로상 시상도 이어졌다. 올해는 7명의 회원이 공로상을 받았으며, 10개의 클럽이 인준을 받았다.

남원 YWCA 조은희 팀장

### 2013년 상반기 회원증모발대식



남원Y는 4월 1일 상반기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하였다. 올해는 특히 활동회원의 발굴을 목표로 다양한 사례를 나누고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담아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청년리더십 개발을 이루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원Y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주 YWCA** 김은진 부장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중심 모니터링 실시**



전주Y는 4월 5일 전주YWCA · 완주군 로컬푸드 모니터단 교육을 진행하였다. 안전한 먹거리 운동과 로컬푸드 농산물 견학, 모니터요령 및 실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모니터단은 완주로컬푸드 효자동 매장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목포 YWCA** 관수현 부장

**2013 고령자 인재은행 취업향상 프로그램**

목포Y는 3월 15일부터 고령자인재은행 취업향상프로그램 '보육시설 조리원 취업교육'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의 준고령자에게 보육시설 조리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교육과 취업교육 고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자리 개척동아리를 결성하여 구직육구 진단검사, 직업 선호도검사를 실시하고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목포Y 어린이집 입학식**



3월 29일 목포Y 어린이집 푸르미 입학식이 있었다. 88명의 원아들을 대표하여 김하름 어린이가 푸르미 임명장을 받았다. 또한 정세인 어린이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내용의 선서와, 자연을 아끼자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여수 YWCA** 장미일 간사

**신임이사 · 위원 및 신입직원 교육**



여수Y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신입직원교육과 신임이사 위원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YWCA목적문 이해와 정체성, 중점운동, 역사, 규정의 이해 및 헌장의 구조, 지역이슈운동의 다채로운 강의가 있었다. 또한 여수Y 부속기관을 탐방과 평가회 시간을 마련하였다. YWCA 배지 수여식으로 마친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Y안에서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신입직원 8명과 신입위원 8명이 참석하였다.

**제주 YWCA** 장진우 간사

사회복지법인 YWCA 양지회 고 조금숙회장 4주기 추모예배 사회복지법인 YWCA 양지회에서는 3월 12일 제주Y 강당에서 고(故) 조금숙회장 4주기 추모예배를 가졌다. 양지회 및 제주Y 이사회, 유족과 그 외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낭독, 추모영상감상 등으로 추모예배가 진행되었다. 조금숙 회장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제주Y회장을 역임하고 1991년 사회복지법인 양지회를 창립하여 제주지역 불우한 이웃과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오다가 2008년 10월 양지회를 YWCA에 기증하고 2009년 3월 10일 소천하였다.

**서귀포 YWCA** 김지희 간사

**고령자 인재은행 산후관리사 양성교육**

서귀포Y 고령자인재은행에서는 여성의 정책개발에 앞장서 온 YWCA의 신개념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산후관리사 양성교육을 개강하였다. 교육은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산모와 신생아 관리에 대한 교육이다. 과정 수료 후에는 서귀포Y 산후관리사로 취업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서귀포Y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월 4일부터 3월 29까지 아이돌보미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부**

**거제 YWCA** 김의향 팀장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거제Y는 3월6일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2013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 취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진희 사무총장과 실무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18명이 참석하였다.

**청소년오케스트라 부활절연합예배 연주회**

거제Y 청소년오케스트라는 3월31일 옥포제일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초청연주를 하였다. 또한 소외된 이웃과 기관 · 단체를 방문하여 부활절 달걀을 나누었다. 거제Y-틴 청소년들은 장애인 시설(애광원 성빈마을)을 방문하여 장애우 친구들과 함께 부활절 계란 포장을 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봉사활동의 시간도 가졌다.

**김해 YWCA** 배정숙 실장

**2013 '애들이 함께 밥 먹자' 캠페인**

김해Y는 3월 27일 김해서중학교 정문에서 '애들이 함께 밥

먹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정성껏 만든 주먹밥과 후원받은 우유, 과일 등을 함께 아침 등굣길에 나눠주고 우리 이웃의 소외된 어린이와 북한 어린이 돕기 '우유저금통 나눠주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교육 기부 체결을 맺게 되는 성과도 있었다.

**대구 YWCA** 김세형 차장

**2013년 회원증모운동**

대구Y는 4월 1일 회원증모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신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저주재!' 라는 슬로건으로 회원증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4월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회원증모를 위한 기도회, 5월 2일 목회자사모초청 오찬회 등을 통해 대구Y와 함께 할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증모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YWCA를 알리고, 생명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달서 나눔장터**



대구Y는 4월부터 10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지하철 용산역과 송현역에서 달서나눔장터를 운영한다. 달서 나눔장터는 중고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녹색생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 수익금의 30%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기부금 전액을 달서구 지역민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울산 YWCA** 이민정 간사

**버스 · 자전거 이용의 날 홍보캠페인**

울산Y는 매월 22일 버스 · 자전거 이용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2일 울산광역시와 구, 군별 5개 지역에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버스, 자전거 이용으로 고유가시대 지구온난화 위기를 넘어 창조세상을 보전하는 일에 울산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포항 YWCA 김윤미 팀장**  
이사·위원·강사 연수 및 회원증모 발대식



포항Y는 4월 3일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에서 강교자 연합회 직전회장의 'YWCA,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위원·강사 연수와 회원증모발대식을 가졌다.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YWCA의 정체성과 Y운동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회원증모발대식을 통하여 회원 증모의 의미와 지역사회 속에서 포항Y의 목적을 새길 수 있었다.

**마산 YWCA 이애라 부장**

경상남도 창원시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를 위한 시민토론회 마산YWCA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는 4월 25일 315아트센터 내 국제회의장에서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토론회를 통해 경남지역 내 유일한 전업형 성매매집결지인 서성동의 집결지 폐쇄 및 재정비를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임경숙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격려사와 좌

장 임경숙경상남도의원, 토론자 이옥선 창원시의원, 박문제 마산중부경찰서 경위, 김서옥 경남 여성가족정책관실 계장, 이경식 시민대표로 구성된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천 YWCA 김상녀 간사**

사천YWCA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사천Y는 지난 3월 4일부터 9일까지 기금 마련을 위한 의류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서 모아진 수익금은 소외 여성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업, 여성과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능력개발, 지구환경 위기인식 강화 및 친환경 생활실천 등의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창원 YWCA 황은진 간사**



창원Y는 3월 15일 회원증모를 위한 동부지역 회원증모 전략 워크숍을 가졌다. 포항Y 김인자 회장의 개최예배, 이천진 목사(공정감리교회)의 회원증모운동의 의의와 이사회의 역할 강의, 대구Y 최정숙, 부산Y 하선규 회장의 사례 나눔이 있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각 회원증모지도자들은 YWCA 목적을 다시 새기며 비전과 열정,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고민하는 Y활동가가 되기를 다짐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사, 직원, 회원 약 90여명이 참석하였다.

# 2013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이렇게 확대 됩니다

##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

- ▶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3. 10월 예정)
- ▶ 위암 치료제인 '티에스원'의 본인부담률이 100% → 5%로 경감됩니다. (13. 1월 예정)
- ▶ 간암 항암제인 '벡사바'의 본인부담률이 50% → 5%로 경감됩니다. (13. 1월 예정)

##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이 완화

- ▶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부분물수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13. 7월 예정)
- ▶ 만 6세 미만 아동의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 추가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3. 4월 예정)
- ▶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및 자기도노카테타(자가배뇨가 불가능한 환자가 사용)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구입비용의 80%)합니다. (13. 10월 예정)

##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의료에 대한 급여 확대

- ▶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13. 7월 예정)
- ▶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의 검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예방효과를 높여줍니다. (13. 4월 예정)

## 고운맘카드 사용 편의성 확대

기존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이 1일 6만원 범위로 제한되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지원금 잔액 내에서 1일 사용한도 제한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 4월 시행)

### ▶ 고운맘카드란?

-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급여로 임신 기간 중 지원 신청한 경우 산전검사, 분만, 산후진료 등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범위 : 임신 1회당 50만원(12. 4. 1. 부터),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70만원 지원(12. 7. 1. 부터)
- ▶ 사용기간 : 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체국을 방문 신청

